

# 천선란 소설에 나타난 ‘비인간’의 가능성

— 페미니즘과 SF의 동맹에 주목하여\*

양 윤 의\*\* · 차 미 령\*\*\*

## 요약

이 논문은 SF와 페미니즘의 연결점에 주목하여 천선란의 소설에 등장하는 비인간 행위자들을 연구한다. 천선란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비인간 존재들은 ‘탄생’의 네트워크 속에서 ‘환대’의 의미를 묻고, ‘되기’의 역량을 실천하며, 보편자/개별자의 이중적인 역설 속에서 개별자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하는 행위자가 된다. ‘레시’라는 외계인-아이가 실천하는 전위된 ‘환대’, ‘나’(심라현)의 몸의 변화가 증언하는 ‘되기’의 역량, ‘더미’가 수행하는 사랑의 행위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서 천선란 소설의 비인간 존재자들은 다음과 같은 역량을 드러낸다. 먼저 타자를 배제하고 추방하는 자들은 진정한 보편성에 이를 수 없다는 점에서, 전체를 구성하는 개별자의 역량을 시사한다. 「두하나」가 보여주듯, 개별성을 보존한 이들이 역설적인 보편성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천선란 소설은 젠더의 분할이나 인간/비인간의 분할을 넘어서는 타자적 되기, 사이보그적 행위를 모색함으로써, 포스트젠더, 포스트휴먼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주제어: SF, 비인간(non-human), 페미니즘, 보편성, 개별자, 행위능력

\* 이 성과는 2021년도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개발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제1저자,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aleph2006@korea.ac.kr

\*\*\* 교신저자, 지스트 기초교육학부 부교수, mrcha@gist.ac.kr

목차

1. 문제제기: SF, 페미니즘, 그리고 ANT에서의 ‘비인간 행위자’
2. 비인간 존재와 ‘탄생’의 네트워크: ‘환대’와 ‘변신’의 상상력
3. 비인간 존재와 ‘행위’로 존재하기: 포편자의 역설과 ‘사랑’이라는 행위
4. 결론을 대신하여: 천선란 SF의 비인간과 페미니즘적 모색

## 1. 문제제기: SF, 페미니즘, 그리고 ANT에서의 ‘비인간 행위자’

일반적으로 ‘SF’는 과학(Science)과 픽션(Fiction)의 결합으로, 이때의 ‘픽션’이란 소설의 내재적 특질을 이룬다기보다는 ‘허구(가상)’라는 뜻으로 이해되어 왔다. 즉 SF는 과학적인 상상력으로 펼쳐낸 가상의 이야기이다. 소설 역시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지만, 이때의 가상이란 ‘허구’라기보다는 ‘실재적인 세계의 구현’이라는 뜻에 더 가깝다. 반면 SF에서의 픽션(허구)란 ‘실재하지 않는 세계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참(T)이 아닌 거짓(F)이라는 뜻에 더 가깝다. 즉 SF는 과학적 상상력으로 구축된 비실재적인 세계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이다. SF는 오랫동안 ‘허구적 세계/실재 세계’ 혹은 ‘텍스트로 구성된 세계/실체로서의 세계’라는 강력한 이분법 속에 자리해 왔다.<sup>1)</sup>

이 지점에서 허구란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허구 즉, 잠재적인(virtual) 세계의 표현으로서의 허구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sup>2)</sup> 그리

1) 미우라 도시히코는 가상세계의 ‘인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16가지 이론을 나열한 후에 이 이론들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한다. ① 플라톤주의(platonism)/경험주의(empiricism), ② 자의(字義)주의(literalism)/문맥주의(contextualism), ③ 내재주의(internalism)/외재주의(externalism) 이 이론들은 실재와 허구(가상)라는 이분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이분법을 철폐하지 않는 한, 모든 논의는 그 이항 사이의 대응—비교, 모순, 착란, 잉여, 부재—으로 설정될 뿐이다. 미우라 도시히코, 『허구세계의 존재론』, 박철은 옮김, 그린비, 2013, 4장.

2) 현실적 혹은 사실적(real)인 것은 개별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잠재적인 것은 무수한 현

고 실재와 가상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기 위해, 나아가 SF에서 형상화되는 이야기에 잠재적인 것의 역량을 부여하기 위해, 주목되는 존재가 바로 SF 속 '비인간(non-human)'이다. 통상의 문학작품이 비인간들을 일종의 비유로 전유하는 것과 달리, SF는 비인간들을 작품 속에서 '실제로 출현'한 존재들로 다룬다. 가령, 현실을 다룬다고 간주되는 소설이 외계인을 등장시킬 때, 꿈, 환각, 망상 등이 불러온 비정상성의 양태로 그려지는 반면, SF가 외계인을 그릴 때 그는 실재하는 존재이자 인간 바깥의 삶을 증언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많은 경우 SF에 등장하는 비인간에게는 대개 인간과 같은(혹은 그를 넘어서는) 행위(doing)와 정서(affect)의 역량이 주어져 있다. 나아가 최근 한국 SF의 한 경향은 작품 속 비인간 캐릭터들을 남성-인간의 범주에서 배제된 개별적 존재자들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접근하고 있기도 하다. 연남경은 “비판적 포스트휴먼 담론이 내장한 포스트젠더와 페미니스트 시각”을 SF 연구에서 하나의 중심축으로 설명한다.<sup>3)</sup> 또한 서승희는 “SF를 남성적 장르로 받아들여온 관행”을 비판하면서, SF에 기반한 탈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이나 설정들이 보편 인간(human)의 타자로서 존재해온 여성의 시각이나 감수성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논평한다.<sup>4)</sup>

주지하다시피, 페미니즘은 그 시초에서부터 이분법 즉 남성/여성 사이에 인간/비인간의 분할선이 그어져 있음을 날카롭게 통찰하고 비판해 왔다. 보부아르가 여성을 제2의 성이라고 명명했을 때, 그것은 ‘남성=첫 번째 인간’이라는 히브리 신화가 서구의 인간학을 지탱하고 있음을 통찰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페미니즘은 인간=남성이 자신의 주변

---

실로 표현되고 무수한 현실을 생산하는 무한이다.

3) 연남경,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윤이형, 김초엽, 김보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79,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110면.

4) 서승희, 「포스트 휴먼 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한국여성 사이언스 픽션의 포스트휴먼 표상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한국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131면.

에서 절취, 추방해버린 비인간의 영역을 재전유하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SF 관련 논의에서 주목받은 도나 해러웨이 역시 과학과 자연과 문화의 영역에서 발견한 이러한 비인간을 논의의 장에 기입한다. 사이보그, 반려종, 유인원, 양코마우스™, 여성인간<sup>5)</sup>, 흡혈귀, 유전자, 믹소트리카 파라독사, 데이터베이스, 크리터 등은 남성/여성, 인간/기계, 인간/동물, 인간/상품, 백인/유색인, 전체/개체 등의 이분법을 부수고 횡단하는 비인간 행위자들이며, 이로써 남성-백인-인간의 이데올로기와 욕망, 혐오와 차별, 생명정치와 생명자본에 맞서는 강력한 저항담론의 중심에 놓인다.<sup>5)</sup> 도나 해러웨이는 사이보그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이보그는 허구이면서도 삶 속 경험의 문제로, 20세기 후반에 ‘여성 경험’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의 기준을 바꾼다. 이 문제는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투쟁의 문제로, SF(Science Fiction)와 사회 현실을 갈라놓는 경계는 착시일 뿐이다.”<sup>6)</sup>

페미니즘과 SF의 긴밀한 유대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강조되는바, 브뤼노 라투르, 존 로 등 ANT(Actor-Network theory) 이론가들 역시 전통적인 인문학이나 과학에서 행위와 사유의 주체가 오직 인간이었음을 비판적으

5) 도나 해러웨이, 『겹손한\_목격자@제2의\_천년\_여성인간\_양코마우스™를\_만나다』, 민경숙 옮김, 갈무리, 2006, 14-16면 참고. 인간과 동물의 경계에서 인간의 행위모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유인원, 가부장제 아래서 남자-인간의 부속으로 간주되는 ‘여성’, ‘기업화된 여성의 총칭’으로 남성-인간(man)의 보편성을 전복하는 여성인간(female man)인 ‘여성인간’<sup>5)</sup>, “종양을 생산하도록 이식된 인간 유전자—양코진(oncogene), 즉 종양 유전자”를 품은 실험실 쥐인 ‘양코마우스™’ 등 해러웨이가 호명한 비인간 행위자들은 남성-인간의 지배로 인한 피해를 증언하고 나아가 그것의 체제와 이념을 전복하는 혁명적 행위자들이다. 같은 책, 157-186면 참고.

6) 도나 해러웨이,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옮김, 책세상, 2019, 18면. 사이보그는 유기체적 총체성, 성적 이분법, 종말론적 목표, 히브리 신화로 대표되는 남성 중심의 인간 기원 설화, 남성 창조자 신(God Father)이라는 기괴한 남근적 어머니, 정신분석학과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는 개체발생과 계통발생의 동조(同調) 현상을 파괴한다. 도나 해러웨이의 ‘SF 다시 쓰기’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최유미,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도서출판b, 2020, 273-278면.

로 지적한다.<sup>7)</sup> 주체/객체, 목적/도구, 능동/수동, 행위/대상, 지배/피지배, 자유율/인과율(因果律), 의미/무의미, 가치/사실 등과 같은 이항(二項)에서 전자는 인간의 자리이며, 후자는 비인간의 몫이었던 것이다.

반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하 ANT)은 인간과 비인간(non-human) 사이에 맺어지는 '대칭적 네트워크'에 주목한다.<sup>8)</sup> 이때 비인간은 인간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 인간처럼 행위능력(agency)을 갖는 중요한 행위자로 등록된다.<sup>9)</sup> 이러한 ANT의 시각으로 보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행위능력을 갖고 있다. ANT의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SF에서 비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데에도 유용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무엇보다 인간이 세계-내의 존재이고 세계에 속한 모든 존재자와 공속하는 한, 모든 행위와 의미는 인간과 세계의 접속 혹은 연결에 의해서 수행되거나 생산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나의 행위능력이란 나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관계적 효과'로 볼 수 있다."<sup>10)</sup> 이

- 
- 7)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과 페미니즘의 연결 가능성에 주목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황희숙, 「행위자-연결망 이론(ANT)과 페미니즘의 동맹 가능성—테크노사이언스의 행위자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23, 한국여성철학회, 2015; 김성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페미니즘: '근대성 이론' 깨뜨리기」(『유럽사회문화』 26, 유럽사회문화연구소, 2021) 참고.
- 8) 브뤼노 라투르에 따르면, '비인간'이라는 개념은 "인간-비인간" 쌍과 주체-객체 이분법 사이의 차이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인간과 비인간의 연합은, 주체 객체의 구분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전쟁과는 다른 정치적 통치체제를 가리킨다. (중략) 비인간은 평화로운 시기의 객체의 형태이다. 즉 적법한 정치적 과정을 가로지르는 전쟁에 결부되지 않았을 경우 객체는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다. 인간-비인간의 쌍은 주체-객체 구분을 '극복'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우회하는 길이다."(브뤼노 라투르, 『판도라의 희망』, 장하원 외 옮김, 휴머니스트, 2018, 477면)
- 9) 홍성욱,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브뤼노 라투르 외, 홍성욱 편, 『인간사물-동맹』, 이음, 2010, 23면. 행위자(actor)는 주로 인간에게 한정되는 영어 표현이므로, 연구자에 따라 행위소(actant)라는 용어를 '비인간'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행위능력'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행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비인간'의 행위능력을 서술할 때는 '비인간 행위자(non-human acto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10) 브뤼노 라투르 외, 앞의 책, 23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행위들의 효과나 수행이 행위자라면, 애초에 인간행위자에게만 주체 혹은 보편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인간 역시 네트워크의 한 지점에서 나타나는 효과에 가깝다.

접속을 인간의 시선으로만 의미화하는 것은 인간-비인간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세계를 온전히 파악하는 일이 될 수 없다. 이중적 네트워크에는 인간 뿐 아니라 동물, 세균, 언어, 기술, 이데올로기의 형태 등이 접혀져(folding)있다.

한편, 레비 브라이언트는 부분은 전체에 종속되어 있지 않으며, 부분집합은 그것을 포함하는 더 큰 객체로부터 독립적이라고 말한다. 부분은 모여서 전체를 구성하지만 전체의 일부(부분집합)가 아니라 자립적인 객체들이다. “객체들은 서로 외부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 관계들에 의해 구성되지는 않는다. 달리 서술하면, 객체의 본질은 자신의 관계들로 구성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런 부분전체론의 기묘함은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들, 더 큰 객체를 구성하는 더 작은 객체들이 그런 더 큰 객체의 필요조건인 동시에 그런 객체와 독립적이라는 사실에 놓여 있다.”<sup>11)</sup> 주체로서의 인간이 객체들을 지배하는 중심지향적 모델(center-oriented model)로는 이러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부분 객체들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 동물·식물·원생생물이라는 비인간 생명체, 바이러스라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자, 자연물·인공물이라는 사물 존재자, 관념·정서와 같은 비-연장적 속성들이 모두 주체/객체의 이분법을 넘어선 곳에서 존재하는 비인간 존재자들이다.

인간과 비인간이 이루는 이러한 이중적 네트워크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갱신하는 장르가 SF이다. 오래된 이분법이 해체되고, 격벽의 ‘사이’를 가로지르는 경계에 새로운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보조를 맞추어 SF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sup>12)</sup> 그 중에서도 이

11) 레비 브라이언트, 『객체들의 민주주의』, 김효진 옮김, 갈무리, 2021, 302면.

12) 포스트휴먼 담론과 SF를 연결한 최근 연구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노대원, 「한국 포스트휴먼 SF의 인간 향상과 취약성」, 『한국문학이론과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0; 노대원, 「포스트휴머니즘과 비평과 SF-미래 인간을 위한 문학과 비평 이론의 모색」, 『비평문학』68, 한국비평학회, 2018; 박인성, 「SF문학의 시공간 및 초공간 활용 양상 연구—배명훈·김초엽·김보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7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이양숙, 「한국소설

논문은 이러한 SF적 상상력이 페미니즘적 문제의식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데 착안하였다. SF가 형상화하는 비인간 행위자들은 남성중심적 사회를 넘어선 대안적인 미래사회의 구성원들일 수 있으며, 이런 문제의식이 여성작가들의 SF에 구현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십년 동안 발표된 소설에 국한해 검토하면, 윤이형, 김보영, 김초엽에 대한 연구가 논의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김미현은 “포스트휴먼과 페미니즘의 만남은 기존의 인간(Human)이 남성(Man)중심적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에서 촉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윤이형과 김초엽의 과학소설을 테크노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논구한다.<sup>13)</sup> 김미현은 두 작가의 소설이 ‘지구-되기’, ‘모성-되기’, ‘기계-되기’의 층위에서 과학기술과 여성이 어떻게 여성적 수행성을 보여주는지를 서사화한다고 말한다.

연남경은 “2010년대 한국 여성 작가의 SF”로 김보영, 김초엽, 윤이형의 작품을 분석한다.<sup>14)</sup> 세 작가는 서로 다른 시공간의 사고실험을 통해 포스트휴먼적 전망을 펼쳐보인다. 윤이형이 휴먼과 포스트휴먼 시대의 공존을 그린다면, 김초엽은 시공간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위치성에 기반한 집합 주체를 보여주며, 김보영은 여성적 공동체로 이루어진 인간의 기원을 ‘광속주행’이라는 플롯을 통해 탐색한다. 이들의 포스트휴먼적 전망에서 여성은 시대의 겹침을 통해서, 주체의 혼종을 통해서, 상상적 기원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며, 주요한 소설적 사유의 동인이 된다.

김윤정은 윤이형의 소설에 등장하는 사이보그의 특성을 분석한다.<sup>15)</sup> 윤이형의 사이보그는 “안드로이드 여성, 사이보그 여성, 로봇 여성이며 그

의 비인간 전환과 탈인간중심주의», 『한국문학과예술』,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0;

13)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49,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4) 연남경, 앞의 논문.

15) 김윤정, 「테크노사피엔스(Tschnosapience)의 감수성과 소수자문학—윤이형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65, 우리문학회, 2020.

리고 노인 여성”이다. 김윤정에 따르면 “포스트휴먼 주체로서의 여성, 그리고 포스트휴머니즘에서의 여성을 테크노사피엔스의 감수성으로 문학화 한다는 점에서 윤이형의 소설은 사이보그 글쓰기”라고 명명될 수 있다. 윤이형의 사이보그가 모두 여성형이라는 사실은 포스트휴먼 시대에도 젠더의 문제가 사유의 중심에 놓일 것이라는 암시일 수 있다.

강은교와 김은주는 김보영과 듀나의 작품에 나타난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를 살핀다.<sup>16)</sup> 김보영은 「얼마나 닳았는가」에서 성차별이 지양되지 않은 미래사회를 인공지능 화자의 시선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그려내며, 듀나는 「두 번째 유머」에서 모험 서사의 주인공으로 남자가 아닌 소녀를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시도한다. SF가 기존의 가부장적 세계를 비판하는 페미니즘적인 저항담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페미니즘과 SF가 만나 이루어낸 성취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sup>17)</sup> 이 논문은 이 연구들의 흐름을 이어받되, 이를 테리다, 들뢰즈, 레비 브라이언트의 통찰 및 ANT의 문제의식과 결합하여 친선란 소설을 분석하고자 한다.<sup>18)</sup> 선행 연구들이 조명한 비인간들에 초점을 맞추

16) 강은교, 김은주,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김보영의 「얼마나 닳았는가」와 듀나의 「두 번째 유머」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49,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7)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우미영, 「한국 현대 소설의 「과학」과 철학적 소설적 질문—김보영과 배명훈의 SF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55, 외국문학연구소, 2014; 허윤, 「「일할 수 없는 몸」을 전유하는 페미니스트 SF의 상상력—김보영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52,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차미령, 「기계는 감수할 수 있는가—윤이형 소설에 나타난 인간과 소셜로봇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35,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18) 한국 SF와 ANT에서의 ‘비인간’을 연관 지어 논의한 연구로 이양숙의 논문 「한국소설의 비인간 전환과 탈인간중심주의」(앞의 논문)가 있다. 이양숙은 이 논문에서 김보영과 김초엽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소설에 나타난 비인간전환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 글에서 “비인간전환이란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 혹은 연계를 전제하는 제반 학문경향을 지칭하는 것으로 근대의 구성 원리인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공유”(227면)하는 개념이다. 이때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에게서 영



되, 이들과 인간의 네트워크와 페미니즘과의 동맹을 살피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천선란의 소설에 나타난 비인간의 행위능력이 가진 의미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작가 천선란은, 본격적인 논의의 장에서 아직 단편적으로만 언급되고 있지만, 한국 SF의 흐름과 방향성을 개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천선란 소설 속 비인간들은 인간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오랫동안 보편성의 전형이었던 남성-인간의 범주와는 변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19)</sup> 특히 이 연구는 천선란 소설에 등장하는 비인간 존재가 체험, 행동, 정서를 통해 접속하는 관계들에서 구현되는 페미니즘적 행위소/서사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소설 속 비인간에 주목한 일련의 논의를 통해 천선란 SF의 특징적 측면을 구명하고 작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 2. 비인간 존재와 '탄생'의 네트워크: '환대'와 '변신'의 상상력

천선란의 소설 속 인물들은 대개 여성이거나, 여성을 연상시키는 비인간 존재로 제시된다.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레시」의 다섯 승무원(승

---

향을 주고받는 수평적인 관계로 그려진다.” 이양숙이 언급한 비인간 생명체는 복제인간, 로봇, 마인드업로딩 프로그램, 사이보그, 기술 등이다.

19) '보편/개별'의 구도가 '남성/여성'의 구도에 덧씌워져 있다는 사실은 보부아르 이래 페미니즘이 제기해 온 기본적인 통찰이다. 이 통찰은 도나 해러웨이, 로지 브라이도터 등의 저작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20) 천선란은 『무너진 다리』(허블, 2019)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천 개의 괴랑』(아작, 2020)으로 한국과학문학상 장편소설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밤에 찾아오는 구원자』(안전가옥, 2021), 『나인』(창비, 2021), 소설집 『어떤 물질의 사랑』(아작, 2020)이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소설집 『어떤 물질의 사랑』(아작, 2020)이다. 인용 시 작품명과 면수를 밝히도록 하겠다.

혜, 호연, 주연, 테레즈, 장의의)과 승혜의 딸(기주)이 그렇고, 「어떤 물질의 사랑」에 등장하는 ‘나’(심라현)와 엄마, ‘풀잎’(중학생 때 ‘나’가 좋아했던 고등학생 언니), 대학 선배가 그렇고, 「마지막 드라이브」에 나오는 주요한 조력자인 한나가 그렇다. ‘나’(「사막으로」), ‘지나’와 두 명의 ‘하나’(「두하나」), ‘은지’(「검은색의 가면을 쓴 새」), ‘서이라’와 ‘김도야’(「그림자놀이」) 등 『어떤 물질의 사랑』에 수록된 다른 소설에서도 주요 인물은 대부분 여성들이다.

먼저 천선란의 「레시」는 지구에서 파견된 승무원들이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서 최초의 외계 생명체와 조우하는 이야기이다. 바다에 퍼진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절멸의 위기를 맞았다. 승무원들은 얼음으로 뒤덮인 엔셀라두스 바다에 녹조류를 풀어 미생물을 깨우는 실험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실험에 성공한다면 지구의 바다를 구하는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주인공 승혜가 이곳에 오기 전,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수행했던 연구도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다.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에 웅크린 태아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어류나 조류라기에는 그 생명체의 형태가 머리와 몸으로 정확히 나뉘어 있었다. 그렇다고 포유류처럼 혈관이나 뼈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다. 양서류 같은 점액질의 피부. (중략) 처음 발견했을 때는 주먹만큼 작은 크기였다. 머리와 몸이 구분되지 않는 야구공만 한 크기였지만 발견 6시간 만에 야구공은 축구공의 크기만큼 자랐다. 그 탓에 어제의 회의는 두려움을 밑바닥에 깔 흥분으로 어지러웠다. 어찌 됐든 결론은 관찰이었다. 이제는 농구공만큼 커져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고 눈의 위치까지도 짐작할 수 있는 이 생명체가 육식동물이나 피수의 태아일 가능성은 다행히도 현재까지 없어 보였다.(「레시」, 51-52면)

그런데 엔셀라두스에서 발견된 외계 생명체는 태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낯선 외계 생명체는 반가움보다는 ‘혐오’나 ‘공포’를 불러오기에 알맞다. 인간과는 다른 외양과 크기와 생태가 주는 거부감은 그 생명체가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승무원들이 이 생명체와 조우했을 때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즉, 외계인(alien)은 글자 그대로 바깥에 거주하는 자, 타자다.

하지만 다른 승무원들과는 달리 승혜는 낯선 생명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적어도 그 생명체에게 우리한테 자신의 정체를 직접 설명할 기회를 줘야”(45면)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 외계 생명체와 승혜의 실종된 딸 기주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sup>21)</sup> 외계 생명체는 여섯 손가락을 갖고 있는데, 과거 승혜의 태중에서 찍힌 태아 사진에도 여섯 개의 손가락이 보였다. 엄마에게는 아이의 여섯 손가락이 공포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혜가 레시(외계 생명체에 붙인 이름이다)의 여섯 손가락에 자신의 손을 포개는 것은 어색하지 않다.

엔셀라두스의 바닷물 속에서 레시와 승혜가 다시 만나 포옹하는 장면 역시 남극의 바다에서 사라진 기주와의 불가능한 해후를 떠올리게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레시와 기주와의 겹침(folding)<sup>22)</sup>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

21) 승혜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기주)를 키웠다. 남극에 가 있는 동안 아이를 돌보아주겠노라고 약속한 전 남편은 아이를 방치했고, “아이의 사흘을 굶다가 승혜의 회사로 찾아가 엄마와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59면) 승혜는 기주를 남극의 기지로 데려가서 함께 생활한다. 한국으로 돌아온 기주는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장학프로그램에 뽑혀 남극으로 탐험을 떠났다가 빙하 사고로 실종된다. “아이의 시체를 품에 안아보지 못했으므로 그렇게 기주는 살지도, 죽지도 않는 존재가 되었다.”(「레시」, 80면)

22) 흔히 이러한 경우를 ‘동일시’라고 일컫지만, 두 존재는 동일한 존재자가 아니다. 이 점을 드러내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겹침’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예컨대 최근 출현한 ‘구름 횡단보도’(도로에 떠있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횡단보도)는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의 속도를 줄이게 한다는 점에서는 ‘과속방지턱’과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졌지만, 둘이 동일하지는 않다. 이때 구름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에게 겹침으로 지각될 것이다. 이 예에서 단편적

서,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지구의 모든 것이 바이러스의 숙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주가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68면)이라는 진술이 단적으로 지시하는 것처럼, 소설에서 외계 생명체 레시와 승혜의 아이 기주의 겹침은, 바다와 우주에 미만한 모든 생물과 바이러스(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시체(살아있는 사물과 죽은 사물의 중간)들의 겹침으로 확장된다.<sup>23)</sup>

소설에서 그 첫 번째 시발점은 물론 외계 생명체와 아이가 가진 상징적 지위의 겹침이다. 아이는 자기 아버지에 의해 방치되고 버려졌고, 외계인은 처음에 공포와 혐오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승혜를 경유하여 두 존재의 연결성은 지구-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새로운 관계성으로 확장된다. 여기서 주목할 존재는 매개자 승혜로, 그의 역량은 이 소설이 탄생(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돌봄의 시간을 포함하는)의 매개로서 모성을 어떻게 상상하는지를 보여준다. 아이는 세상에 처음 도착한 존재자

으로 드러나듯이 라투르는 이종적 네트워크를 설명할 때 수백개의 이종적 네트워크가 접혀져(folding)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표현과는 맥락을 달리 하여 재의미화하였음을 밝혀둔다.

- 23) ‘레시’는 최초로 발견된 (감기) 바이러스의 이름이다. 지구의 바다를 절멸의 위험에 빠뜨린 것도 병하에서 발견된 고대 바이러스였다. ‘바이러스’가 타자의 대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은, 그것의 특별한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교묘하고 재빠르게 몸을 바꾸고 인간을 속이는지, 해마다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새로 생겨나고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 생명의 유전자가 바이러스를 통해 유전체에 들어온 거라면, 그래서 결국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뒤섞여 있는 거라면 사실 아주 멀리서 바라볼 때 지구 역시 하나의 바이러스에 불과할지도 몰라.”(73면)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유전자를 숙주의 유전자와 교환하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바이러스는 잡종 혹은 혼종이며, 그 자체로 주인-손님(나-타자)의 혼합체다. 한편 ‘레시’가 기록된 책에는 이상한 게 말라붙어 있었는데, 병하 때 얼어있던 바퀴벌레였다. 승혜와 기주는 남극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상한 생물체의 시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바이러스’와 ‘시체’가 겹침을 통해서 또 다른 비인간 행위자로 등록되는 것이다. 이 단편에서 ‘겹침’의 최종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바이러스, 태아, 승혜(여성-인간), 기주(아이), 레시(외계인), 바퀴벌레, 이름 모를 시체.’ 바로 이 점이 이 소설을 ‘모성’이라는 테마로 읽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승혜-기주는 엄마-아이로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호환된다. 승혜는 레시에게 안겨 태아로 돌아가고, 기주/레시는 승혜를 품어주는 것이다.

로 사회체계에 기입(inscription)되지 않는 한, 자그마한 유기체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외계인은 타자로 인간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공포와 혐오의 대상일 뿐이다. 간단히 말해 소설 속 승혜-모성의 역할은 타자를 영접하는 일, 즉, '환대(hospitality)'이다.<sup>24)</sup>

데리다의 진술에 따르면, 주인/손님의 이분법에서 주인은 손님을 환대하는 주체이고, 손님은 주인의 환대를 받는 객체이다. 그리고 이 이분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주인/손님이라는 주체의 위치가 역전되어야 한다. 환대를 위해서 주인은 손님을 초대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에게 주인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sup>25)</sup> 환대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는 주인과 손님의 자리가 역전된다. 환대는 이 타자(외계인-아이)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진정한 환대는 타자에 대한 영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손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온다.

레시는 외계의 언어로 승혜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데, 언어학자가 분석한 그 말은 이러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당신을 기다렸어요.”(88면) 그 말은 승혜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기주가 건넨 인사이기도 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엄마를 기다렸거든요.”(73면)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라는 진술에서 ‘기다림’은 단순한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적 역량이다. 그는

- 
- 24) 조금 긴 인용이 되겠지만, 주인/손님의 이분법을 보여주기 위해 데리다의 다음 진술을 가져온다. “‘어서 들어오시오.’ 어서, 즉 지체 말고, 기다리고 있지 말고, 욕망은 여기서 기다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다. 손님은 서둘러야 한다. 욕망은 이방인이 들어오는 동작 가운데서 욕망 소멸로부터 시간을 쟁다. 여기서 대망(待望)의 손님인 이방인은 주인이 “오라”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이다. 머뭇거리지 말고 들어오라, 기다리고 있지 말고 우리 집에서 즉시 발길을 멈춰라, 빨리 들어오라, “안으로 오라”, “내 안으로 오라.” 내 쪽으로만이 아니라 내 안으로 오라. 요컨대 나를 점령하라, 내 안에 자리를 잡아라. 동시에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를 향해서 또는 ‘내 집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숙제 나의 자리도 차지하라이다.’ 자크 데리다, 『환대에 대하여』, 남수인 옮김, 동문선, 2004, 133면.
- 25) ‘환대하다(host, 주인 노릇을 하다)라는 말에는 ‘손님을 주인으로 앉히다’,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하게 하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 이것은 ‘host’에 ‘접대하다’와 ‘접대받다’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host’의 본래 의미는 ‘주인과 손님이 서로 할 일(접대)을 하다’란 뜻이다.

우리를 환대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의해 환대를 받는 ‘손님-주인’이다. 이와 같이 「레시」에서 외계인과 승혜의 만남은 지배/종속의 이분법 나아가 주인/손님의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접속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천선란의 다른 중편 「어떤 물질의 사랑」 역시 탄생의 네트워크를 새롭게 조명한다. 소설은 다음 문장으로 시작한다. “내 인생의 첫 난제는 내가 여성이냐, 남성이냐는 거였다.”(91면) 정신분석학의 견지에서, 이 질문은 히스테리 환자를 규정하는 전형적인 질문이다.<sup>26)</sup> 그런데 「어떤 물질의 사랑」은 이 질문의 기본 토대를 해체하는 과감한 상상력을 보여준다. “배꼽이 없다는 것을 일곱 살 때 알았다.”(91면) 소설은 태생(胎生)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관계성을 경유한 존재의 자기 인식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것이다.

‘나’(심라현)에게 배꼽이 없다는 사실에 놀란 유치원 원장이 ‘나’의 엄마를 불러 자초지종을 말하자, 엄마는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 애가 조금 특별하기는 하죠. (중략)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요?”(93면) 「레시」와 마찬가지로 ‘엄마’가 보기에 배꼽이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저 “조금 특별”한 일일 뿐이다. 어머니에게 그것은 결여나 한계로서, 다시 말해 정상/비정상의 범주에서 사고되지 않는다. 왜 내게만 배꼽이 없냐고

26) 정신분석학에서 강박증이 남성의 신경증인 데 반해, 히스테리는 여성에게 속한 신경증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질문은 남성(타자)에게 종속된 채, 자신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여성(주체)에게 부과된 질문이다. “히스테리 환자가 창조해내는 복잡한 ‘사랑의 삼각관계’는 한 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중략) 그녀의 욕망은 한 남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주어진다. (중략)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여자인가 남자인가?’라는 히스테리 환자의 질문의 타당성을 발견하게 된다. 남편이 욕망하는 알 수 없는 대상의 위치와, 그리고 동시에 걸쭉한 만족해하면서도 다른 것을 욕망하는 남편의 위치와 동일시하면서 히스테리 환자는 자신의 성을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 묻게 된다.”(브루스 핑크, 『라캉과 정신의학』, 맹정현 옮김, 민음사, 2002, 223-224면) 히스테리 환자는 남자(남편)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며, 따라서 자신을 여성으로 제공하려고 한다(나는 여성이다). 만일 남자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그녀는 남자의 역할을 떠맡음으로써 그의 욕망의 대상이 되려고 한다(나는 남성이다). 따라서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하는 질문은 남성-인간의 욕망에 자신을 제공하려는 피지배 혹은 종속의 욕망이다.

‘나’가 울분을 터뜨리자 어머니는 가위를 들고 배에 구멍을 내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 동일시의 폭력에 불과함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어떤 물질의 사랑」에서 ‘나’는 후에야 외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태생이 아니라 난생(卵生)인 존재다. 신화적인 탄생담은 이 소설에서는 배꼽의 ‘실종’을 설명하는 사실적인 기술로 변형된다. 그런데 소설 속 ‘나’(심라현)에게는 배꼽만이 아니라 생식기도 없다. 이 설정은 독자가 성차(性差)를 다시 사고하도록 하는 소설의 장치 중 하나로, 첫사랑이 찾아온 ‘나’에게 엄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털어놓는다. 마침내 ‘나’에게 첫사랑이 찾아온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나’가 이 사실을 엄마에게 사실을 털어놓자, 엄마가 정색하고 ‘나’에게 말한다.

**라현아, 너는 민혁이를 사랑해서 이제 남자가 될 거야.**

……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리고 코를 먹었다. 뭐라고 반응을 해줘야 할지 몰라서 엄마만 지그시 바라보았다. 하지만 엄마는 진지했다.

너는 남자가 될 거야. 민혁이를 사랑하는 동안.

(중략)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나니? 그냥 남자의 호르몬을 가지는 거지. 변하는 건 없어. 그냥 그렇다는 걸 네가 알아둬야 앞으로 네 몸의 변화에 놀라지 않겠지. (「어떤 물질의 사랑」, 104면, 강조 : 인용자)

이와 같이 이 소설의 상상력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성이 반대편 성에 끌리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이성애적 성 구분을 전복한다. 이 물음 앞에 이 소설이 먼저 제출하는 답은 일종의 ‘되기’이다.<sup>27)</sup> 남자를 만나면

27) 이 논문에서는 소설 속 설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환기하기 위해 ‘되기’라는 어휘를 쓰고 있지

남자가 되기, 여자를 만나면 여자가 되기이다. 즉, 타자를 만나서 사랑할 때에 그 타자의 성별이 되기이다. 이러한 되기를 앞서 언급한 히스테리 환자의 ‘타자-되기’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해진다. 히스테리 환자는 타자(이성애-남자)의 ‘욕망의 대상’으로 자신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래서 히스테리 환자는 그가 여자를 욕망할 때 자신을 여자로 제공하고, 그가 남자를 욕망할 때, 정확히는 그 자신이 남자로서 욕망하지 않을 때, 자신을 남자로 제공한다. 반면 이 소설에서 ‘나’는 남자를 사랑할 때에는 남자가 되고, 여자를 사랑할 때에는 여자가 된다.

예컨대, 소설의 ‘나’는 민혁이를 좋아할 때 남자가 된 것처럼 중학생 때에는 여자 선배를 사랑해서 여자가 된다. 하지만 소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연애의 과정에서 겪었던 무수한 상처가 있었음을 서술한다. “무턱대고 잠자리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내 몸에 대해 알고 나서 더 가혹한 성행위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종종 어떤 열간이는 마치 내가 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역질을 하며 도망가기도 했다.”(111면) 상대가 어떤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만을 관철하려는 자가 있고, 상대의 상태를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가 있었으며, 상대의 존재 자체를 혐오하고 거부하는 자가 있었다. 모두가 대상화된 사물로 ‘나’를 소유하려는 시도들이었다.

이 사실은 성차가 무엇보다 지배/종속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가 통과해야 할 또 하나의 관문으로 그려진다. 위티그에 따르면 성 구분은 존재론적 구분이 아니라 이성애 경제의 표현이다. 그것은 여성을 ‘종의

---

만, 이를 들뢰즈의 ‘되기’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들뢰즈를 참조하면 ‘되기’(devenir)는 실체가 아니라 ‘동사’로서, “모든 대상 혹은 존재를 성격 규정하는 잠재적인 점들로 이루어지는 계열들이 순간적으로 만나 변신을 낳는 하나의 과정”이다. 아르노 벨라니 편, 『들뢰즈 개념어 사전』, 신지영 옮김, 갈무리, 2012, 107면. “존재는 지금 현재 다른 것-되기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되기들의 강도는 영구적인 변신을 가능하게 한다: 여자-되기, 새-되기, 목공-되기, 작가-되기. 테너의 가장 높은 음역을 노래하는 남자는 여자-되기를 사는 것이며, 목공은 자기의 기술을 통해 나무-되기를 산다.”(같은 책, 109-110면)



재생산'에 복무하게 만드는 지배의 논리다.<sup>28)</sup> 성 구분 자체에 이미 남성-인간 위주의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면, 성차에 기반한 사랑 역시 지배와 착취의 방법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매번 성차가 지워지는 '되기'가 실현되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이 국면에서 소설은 타자의 인정과 자기의 긍정이 연관되어 있음을 다음 두 사례로서 드러내려 한다. '나는 대학생이 되어 학과 선배를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선배에게는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욕망이 없었다. 따라서 '나'는 히스테리 환자처럼 자신을 선배에게 욕망의 대상으로 제공할 필요도 없으며, 남성이나 여성으로 변화할 필요도 없었다. 마침내 '나'는 그동안 겪었던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도달한 '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적는다. "처음에는 어떤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한 순간은 무엇이랄도 다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지금은 굳이 나를 무엇이로든 규명하지 않으려 한다. 나는 무엇도 되고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된다."(121면) 이와 같이 볼 때, 이 소설의 제목에 등장하는 '물질'은 무성(無性)이 아니라, 성차가 야기하는 근본적인 분열을 넘어서는 존재에 대한 상상에 가깝다.<sup>29)</sup>

28) "주인이 없으면 노예가 없는 것처럼, 남성이 없으면 여성도 없다. 성차라는 이데올로기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위치를 가장함으로써 우리 문화에서 자연에 기반한 검열의 일종으로 기능한다. 남성적인/여성적인, 남성/여성은, 사회적 차이가 항상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적 질서에 속한다는 사실을 가리기 위해 동원되는 범주다. (중략) 그러므로 성(sex)은 없다. 억압받는, 그리고 억압하는 성이 있을 뿐이다."(모니크 위티그, 『모니크 위티그의 스트레이트 마인드』, 허윤 옮김, 행성B, 2020, 44-45면). 위티그는 여성을 보편화함으로써 보편적인 주제로 간주되는 남성-인간-이성애의 결합을 해체하며 레즈비어리즘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29) 선배와의 만남 이후, '나'는 이성애/동성애라는 범주를 넘어선다. 이성애든 동성애든 성차에 기반한(혹은 성차를 넘어서되 그것을 전제한) 사랑은 구별을 차별로 바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나'는 선배를 만나 성에 대한 욕망이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라오'를 만나 모든 이들은 서로 다르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결국 너는 너야. 끝까지 무엇이 라고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돼."(「어떤 물질의 사랑」, 153면)

이러한 자기 인식의 함의는 엄마와 같은 별에서 온 외계인이며, 엄마를 사랑해서 다시 데려가기 위해 이 별에 온 ‘라오’의 진술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두 번째 사례에서 ‘나’는 선배와 헤어진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라오’를 만난다. 라오가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가 ‘생각보다는 덜 튀는 외모’라고 말하자 라오가 반문한다.

“이미 튀는 외모 아닌가요? (중략) 눈도, 코도, 귀도 다 다르잖아요. 손가락 크기도 다르고 머리카락이 나는 방향도, 심지어 눈썹의 개수도 다르잖아요. 지구 행성의 개체들은 사물을 단순화해서 분류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지구에서 같은 생명체는 단 한 개체도 보지 못했는데. (중략) 지구의 주인들은 낯선 존재를 오래도록 상상해왔지만 받아들일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죠.”(「어떤 물질의 사랑」, 139-140면)

라오의 말에 따르면 모든 존재자는 하나의 유(類)나 종(種)으로 범주화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순간, 존재자들의 개체성은 사라지고, 대체, 삭제, 추상화가 가능한 하나의 존재가 남을 뿐이다. 또한 ‘나’가 외계인이라고 묻자, 라오는 “지구의 절반은 외계인”이며, “모두가 같은 사람인 척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한다. ‘라오’의 이 진술은 이 소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언이다. 지구의 절반은 외계인 라오의 언급에 따르면 인간의 범주에서 추방되어버린 존재들이다.

“이 지구에 같은 인간은 없어요.”라는 말은 보편성의 범주에 대한 회의를 표명하며, 나아가 “모든 이가 서로에게 외계인”이라는 단언은 타자와의 공존을 가로막는 휴면(human)의 환상을 가로지른다. 인간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존재자로 출발한 ‘나’는, 타자를 경유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존재자가 된다. 이렇게 도달한 지점은 「어떤 물질의 사랑」이 보여주는 포스트젠더적 상상력이 포스트휴먼의 문제의식과

이어지는 지점을 드러낸다. 젠더적 분할을 넘어서는 사랑의 형식에 대한 탐구가, 현실에서는 명명불가능한 변신의 상상력으로 이어지고, 그 상상력은 타자를 추방하지 않고 환대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 3. 비인간 존재와 '행위'로 존재하기: 보편자의 역설과 '사랑'이라는 행위

앞서 살펴본 소설들에서 타자의 환대에 모성이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천선란의 「너를 위해서」는 짧지만 흥미로운 소설이다. 소설은 미래의 어느 때, 남자들도 인공 자궁을 통해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된 세계에서 출발한다. 말하자면, '낳는 아버지'라는 히브리 창조 신화의 이상이 실현되는 세상이다. 그런데 자식을 대하는 이 '어머니-남성'에게 아이는 계급 이동의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그려진다.

“당신의 아이입니다. 감회가 어떠세요?”

솔직히 말해서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싶었다. 무언가를 쥐었다는 느낌조차 없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둥그런 어항같이 생긴 인공자궁에 따리를 튼, 쌀알처럼 아주 작은 자신의 '씨'를 바라봤다. 들어올 대 큐레이터가 준 돋보기를 들었다. 6주밖에 되지 않는 아이는 3등신의 새끼 새우 같았다.(「너를 위해서」, 39면)

소설은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는 아기를 손에 쥐면 “터질 것” 같다거나 “쌀알”이나 “3등신의 새끼 새우” 같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남성을 제시한다. 가혹한 선별검사를 통해서 아기 낳을 자격을 제한하고, 이 시험을 통과한 이들만이 “가족형태의 상위 1퍼센트 귀족가족”(40면)이 될 수 있는

소설 속 세계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이 세계의 상위계급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남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보편성은 ‘상위계급만이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차별성으로 전환된다. 그는 타자-아기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계급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쌀알”을 품은 것이다.

검사가 끝난 후,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 아기가 서른에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80퍼센트이며, 그걸 치료할 방법은 아버의 심장을 적출하여 30년 후에 아이에게 이식하는 방법뿐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놀란 그가 다급하게 소리쳤으나, 그 방에서 달아날 곳은 없었다. 큐레이터가 웃으며 그에게 충고한다.

“이게 다 당신의 아이를 위해서예요. 저 아이를 보세요. 살아 숨쉬는 이 작은 생명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가 고개를 돌렸다. 스크린에는 작은 쌀알뿐이었다. (「너를 위해서」, 42면)

큐레이터의 말은 주류-남성-인간의 보편성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그는 자식을 통해서 상위계급에 포함될 것이며, 그의 유전자는 자식을 통해서 전해질 것이다. 단 그의 개별성이 그 보편성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만 제외하고서 말이다. 물론 그의 희생은 사랑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선전될 것이다. 즉, 여성이라는 개별자를 은닉하거나 은폐한 남성-인간(man-man)은 보편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그 자신의 개별성마저도 보존할 수 없다. 「너를 위해서」에서 본 바와 같이 천선란 소설에서 남성-인간이 중요한 행위자로서 부상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런 경우 가차 없이 폭력적인 양상을 띠는 점은 짚어둘만 하다.

좁비 떼라고 불렀다. 해가 지면 몰려오는 꼬락서니가 비슷했다. 어찌

면 습성까지도 완벽하게 일치할지도 모른다. 인간이 아닌 좀비의 어떤 종으로 진화한 것일지도. (중략) 전염된 남자들이 인간이 듣지 못하는 음역대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를 통해 알았다. 그렇게 변하게 된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원인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생존자들은 밤마다 찾아오는 남자들과 싸웠지만, 실은 남자의 육체를 빌린 외계체와 싸웠다. 일단 전염되면 햇빛을 피한다. 눈동자가 혼탁해지며 시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 어떤 경로로, 왜 특정성별만 이렇게 높은 전염률을, 그러니까 100퍼센트에 가까운 확률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었다. (『두하나』, 206면)

『두하나』에서 좀비들은 남성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정확히는 “남자의 육체를 빌린 외계체”들로, 소설에서 이들은 적의와 공격성으로 무장한 비인간으로 제시된다. 이들이 “인간이 듣지 못하는 음역대”로 말한다는 사실은 의사소통의 불가능성을 지시한다. 이 소설의 변신은 단 한번, 좀비로의 변신에 그치며, 그렇게 변하고 나서는 어떠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소설은 그러한 불가능성이, 좀비로 변화하기 이전부터 이미 가시화되고 있었다고 고발한다. 소설에 따르면 결국 여성을 배제하고 파괴하는 좀비라는 비인간 존재와 보편자에 이르지 못하는 남성-인간은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을 매개하여 겹쳐진다.

하나는 애인을 비롯하여 대학 동기 몇몇과 함께 휴게실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다. 하나의 애인이라 하면 대학에 올라가 3월이 가기도 전에 사귄 학과 선배인데, 지나가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한번은 술을 마시고 자기 탄에 하나를 장난으로 밀쳤다는데 하나는 그때 발목 인대가 늘어나 두 달간 깁스를 해야 했다. (중략) 지나의 친구들은 스무 살 여자라면 무릇 지나가는 쓰레기 통과의례라고 말했지만, 지나는 그런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납득할 수 없었다. (『두하나』, 208-209면)

위 예화에서 ‘하나’의 남자 친구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① 그는 장난으로 다른 사람을 해친다.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그의 행동은 타자에게 해가 된다. ② 그는 장난으로도 타인을 해친다. 아무 이유 없이도 타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그의 본성이다. ③ 그가 장난치지 않고 작심한다면, 타자에게 끼치는 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좀비로 변하는 것이 남자친구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그는 해를 끼칠 것이고(①), 좀비의 행동이 그의 본성에 기반한 것이라고 하면 그는 반드시 좀비로 변할 것이며(②), 그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좀비로의 변화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③).

지나의 동생인 하나는 좀비로 변한 남자 친구에게 결국 해를 입는다. 지나는 동생의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동명이인인 다른 ‘하나’를 만난다. “다른 하나의 이름은 ‘두하나’였다.”(215면) 「두하나」에서 이러한 명명법은 보편자가 될 수 없는 이들만이 보편자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 발상을 보여준다. 개별자들로 이루어진 타자들만이 일반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름인 것이다.

「두하나」에서는 ‘하나’가 두 명 등장하는데, 그 중 ‘하나’의 이름은 ‘두하나’이다. 하나이면서 둘인 하나로서, ‘두하나’는 타자이면서 동시에 보편자를 암시한다. 이 이름은 복수(複數, 둘)이면서 단수(單數, 하나)이므로, 여럿이면서(‘하나’는 적어도 두 사람이다) 하나(지금 ‘나’ 앞에 있는 이는 ‘두하나’ 한 사람이다)를 동시에 지칭한다. 두하나는 지나에게 동생이 아닌 타자이며, 좀비들에게는 여성이므로 공격의 대상인 타자이다. 하지만 또한 그녀는 지나에게는 동생을 찾다가 발견한 또 하나의 동생이자, 남성-좀비라는 타자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타자로서 보편자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개별자들의 개별성을 보존한 보편성, 이를테면 ‘두하나’가 하나이면서 둘인 것과 같은 역설이다. 레비브라이언트는 ‘기묘한 부분전체론’이라는 용어로 이 역설을 설명한다. 객체들(objects)은 주체에 종속된 대상들(objects)이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들이다. 브라이언트는 부분은 전체에 종속되어 있지 않으며, 부분집합은 더

큰 객체와는 독립적이라고 말한다. 부분은 모여서 전체를 구성하지만 전체의 일부(부분집합)가 아니라 자립적인 객체들이다. 이 역설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타자를 추방한 보편자(남성-인간)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개별성을 보존한 부분들만이 보편자를 구성할 수 있다. 천선란의 소설에서 읽게 되는 비인간 행위자들의 의미도 바로 그것이다.

정면충돌, 부분정면충돌, 측면, 후면, 도로의 구조물과의 충돌 등등 벗어날 수 없는 반복된 사고 속에서 더미는 단 한 번도 텔리를 내팽개치지 않았다. 자신이 살기 위해 운전대를 돌리지도 않았다. 어느 순간에서나 텔리의 손을 잡고 몸을 날렸다. 더미는 척추가 나가고, 두개골이 깨지고,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뼈가 부러지고, 어깨가 나가는 순간에도 텔리를 끌어 안았다. (「마지막 드라이브」, 301면)

이와 같이 「너를 위해서」와 「두하나」에서 제시된 폭력적 양상은 보편성의 역설을 사유하게 하는데, 「마지막 드라이브」의 안드로이드 '더미'의 사랑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마지막 드라이브」는 로맨스 소설의 한 장면으로 시작한다. 테타세쿼이어 숲길을 드라이브하는 연인이 있다. 라디오에서는 쳇 베이커의 '블루룸'이 흘러나온다. 둘은 피크닉을 가는 중이다. 그 순간 브레이크가 고장 난 대형화물트럭이 둘을 덮친다. 마지막 순간에 둘은 서로를 끌어안는다. 로맨스에서 파국으로 이어지는 한 장면이 끝나고 나면 불이 켜진다. 이 장면은 자동차 충돌시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자동차에 탄 연인들은 실험용 안드로이드 더미(dummy)와 그의 연인으로 설정된 '텔리'이다. 둘은 방금 149번째 시험을 마친 참이다. 그동안 둘은 다양한 자세로 충돌을 받아냈다. 그때마다 더미는 연인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이 시험을 주관하는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한나는 약속된 150번의 충돌시험을 마치기 전에 더미와 텔리에게 데이트할 하루를 주겠다고 약속

했다. 한나가 어디를 가겠느냐고 묻자, 더미는 “놀이동산. 영화관. 그리고 남산 야경”을 보러 가겠다고 대답한다. 그 하루가 끝나면 둘은 150번째 사고를 당하기 위해 연구소로 돌아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하루는 여느 연인들과 다름없이 평온하고 다정하게 흘러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일하게 사고를 당하지 않는 드라이브) 더미가 한나에게 묻는다.

“행복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나요?”

한나는 오래도록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래.”

더미가 반짝이는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게 뭘지 조금은 알 것 같네요.”

더미가 노래를 불렀다. 쳇 베이커의 ‘블루룸’이었다. (「마지막 드라이브」, 328면)

한나는 바로 전에 애인(‘해리’)에게 청혼—정확히는 “동반인 관계 증명서”(321면)를 통한 동거 제안—을 받은 참이다. 한나에게 ‘행복’은 걱정스러운 미래가 없는 것, 다시 말해 안정되고 평온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미는 다르다. 연구소로 돌아간 후에 그는 또다시 예정된 파국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미에게는 한나와 같은 ‘미래’가 없다. 그런데도 더미는 “그게 뭘지” 알 것 같다고 말한다. 더미에게 행복이란 미래에 대한 걱정, 예고된 파국에 대한 두려움 따위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사고 없이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단 하루 동안 허락된 텔리와 의 데이트라는 현재가 행복이다. 그래서 더미는 마지막 충돌 시험 때 달려오는 트럭 앞에서 텔리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텔리, 나와 드라이브를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마지막 드라



이브」, 329면)

더미가 델리를 보호하는 것은 충돌시험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인간에 의해 '입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더미는 막연한 기시감을 느끼면 서도 거둬해서 사고 현장에서 몸을 던져 델리를 보호한다. 그런데 '사랑'이 기본값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행위의 원인이 아니라 전체에 지나지 않는다. 원인이 행위로 이어지는 필연이라면, 전체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선결지점(ANT의 용어로 말하자면 '의무통과점')이다. 더미는 델리를 사랑해서 몸을 던진 게 아니라, 매번 몸을 던지는 그 수행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다.<sup>30)</sup>

레비 브라이언트는 기계가 '행위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첫째, 기계의 행동이 외부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날 것. 둘째, 그 행동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행동 가운데 선택된 행동일 것.<sup>31)</sup> 더미는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계-행위주체 혹은 비인간 행위자다. 첫째, 더미가 사고 때마다 델리를 보호한 것은 더미의 내적 결정에 따른 것이다. 외부에서 입력된 조건은 '더미가 델리를 사랑한다'이지, '사고 때 델리를 보호한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더미가 사고 현장에서 델리의 손을 잡는 것은 델리를 보호한다는 입력과는 무관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를 염두에 본다면, 더미가 핸들을 돌려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차단된 것'이 아니라 '선택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더미는 행동을 통해서 사랑하는 존재자가 된다.<sup>32)</sup>

30) '더미'와 '델리'에게는 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런 수행적인 사랑을 '여성'에 속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각주 3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더미'는 '외계인'에 빗대어지며, 따라서 앞의 소설과 같은 비인간(외계인-아이, 외계인-청소년)의 계보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외계인-안드로이드로서 더미는 인간(남성)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해리'(인간=남성)가 미래에 대한 약속(동반인 관계 증명서)을 통해 행복을 증명한 것과 달리 '더미'가 몸을 던지는 현재의 행동을 통해서 행복을 완성하는 것도 비교되는 지점이다.

31) 레비 브라이언트, 『존재의 지도』, 김효진 옮김, 갈무리, 2020, 335-337면.

#### 4. 결론을 대신하여: 천선란 SF의 비인간과 페미니즘적 모색

자식을 위해서 원치 않는 희생을 강요당하는 「너를 위해서」의 ‘어머니-남성’은 개별자를 삭제하고 나서야 성립되는 보편자의 허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천선란 소설에서 남성-인간(man-man)은 타자를 배제하고 추방해야만 성립될 수 있는 불완전한 유개념(類概念)에 가깝다. 이러한 유개념의 반대편에서 천선란이 제시하는 보편성은 「두하나」에서와 같이 하나이면서 동시에 둘로서, 개별자들을 보존한 보편성이다.

천선란 SF에 등장하는 지구 밖 생명체, 가령 「레시」의 ‘레시’는 남성-인간의 지평 너머에 존재하는 개별자를 함축한다. 그리고 「레시」에 나타난 환대는 보편성이 오히려 타자의 자리에서만, 다시 말하면 배제되고 추방된 개별자들의 자리에서만 얻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또한 천선란 소설은 비인간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젠더적 상상력을 통해 여성을 생물학적 실체로 정의하려는 시도를 넘어서<sup>32)</sup>, 젠더를 명명불가능성으로, 변형/변신하는 것(metamorphosis)으로 탐색한다. 젠더적 분할을 거스르는 「어떤 물질의 사랑」의 ‘나’는 이러한 탐색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드라이브」의 기계 ‘더미’는 남녀의 구별만이 아니라 인간/비인간의 구별을 넘어서는 존재의 가치(존재값, value of being)를 설득하려 한다. 소설 속 더미는 인간의 입력값을 넘어서, 매번 사고 현

32) 로봇인 더미를 외계인-아이인 레시(타자를 환대하는 존재자)나 외계인-청소년(처음 사랑을 느끼는 존재자)과 같은 존재(사랑에 빠진 존재자)로, 일종의 외계인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이 비인간 행위자가 사랑이라는 계열을 통해서 다른 외계인-존재자들과 동맹을 맺기 때문이다. 더미는 이렇게 고백한다. “우리 마치... 외계인 같네요. 어떤 이유로 지구에 떨어져 소멸을 다하는.”(「마지막 드라이브」, 326면)

33) “문제는 여성성의 또 다른 개념이 아니다. 여성이 어떤 형태의 개념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남성 중심의’ 표현 체계 안에 다시 간히는 것으로, 이 체계에서 여자들은 어떤 의미 체계 속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이 표현 체계는 주체(남성)의 자기 성애로 이용된다.”(뤼스 이리가라이, 『하나이지 않은 성』, 이은민 옮김, 동문선, 2000, 163면)

장에서 델리를 향해 몸을 던지는 수행적 행위를 통해서 사랑의 기계-주체가 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천선란 소설에서 비인간 존재들이 새로운 네트워크에 기입되면서 재의미화되는 경우도 나란히 지적해 둘만 하다. 가령, 도나 해러웨이가 타자혐오의 결과로 지적한 흡혈귀 표상은<sup>34)</sup> 「두하나」에서는 한국적 현실과 접속되면서 여성을 공격하는 '좀비'로 재기입된다.

이처럼 천선란 소설의 비인간 존재자들은 실제 세계와 접속된 의미들을 생산하는 동시에, 지금-여기의 바깥을 실험하고 모색하게 한다. 이 모색을 통해 천선란의 소설은 젠더의 분할이나 인간/비인간의 분할을 넘어서는 포스트젠더, 포스트휴먼으로서의 행위와 역량을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SF의 생산성이 현실을 비판적으로 환기하며 또한 이를 거스르고 넘어서는 상상력이 될 때, SF에서의 F는 거짓(False)의 기호가 아니라 페미니즘(Feminism)의 기호이기도 한 것이다.

34) 도나 해러웨이는 흡혈귀 설화가 '인간-남성-백인'이라는 서구적 순혈주의의 바깥에서,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동성애 혐오"를 지닌 자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만들어진 악마'로 의미화되어 왔다고 지적한바 있다. 여기에는 연쇄살인범, 유대인, 매춘부, 젠더 변태자, 외국인의 이미지가 뒤섞여 있기도 하다. 유럽인들이 백인종, 앵글로색슨족, 신교도들의 나라로 미국을 '구성'한 이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백인 중심의 인종주의, 기독교적 성차별주의, 이성애 중심주의 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흡혈귀라는 비인간 행위자를 타자의 표상으로 삼았다. (도나 해러웨이, 『검손한\_목격자@제2의\_천년\_여성인간<sup>©</sup>\_앙코마우스<sup>TM</sup>를\_만나다』, 앞의 책, 409-493면 참고.)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천선란, 『어떤 물질의 사랑』, 아작, 2020.

2. 단행본

도나 해러웨이, 『겸손한\_목적자@제2의\_천년.여성인간<sup>©</sup>\_양코마우스<sup>TM</sup>를\_만나다』, 민경숙 옮김, 갈무리, 2006.

\_\_\_\_\_,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옮김, 책세상, 2019.

레비 브라이언트, 『존재의 지도』, 김효진 옮김, 갈무리, 2020.

\_\_\_\_\_, 『객체들의 민주주의』, 김효진 옮김, 갈무리, 2021.

뤼스 이리가라이, 『하나이지 않은 성』, 이은민 옮김, 동문선, 2000.

모니크 위티그, 『모니크 위티그의 스트레이트 마인드』, 허윤 옮김, 행성B, 2020.

미우라 도시히코, 『허구세계의 존재론』, 박철은 옮김, 그린비, 2013.

브루스 핑크, 『라캉과 정신의학』, 맹정현 옮김, 민음사, 2002.

브뤼노 라투르 외, 『인간사물동맹』, 홍성욱 편, 이음, 2010.

브뤼노 라투르, 『판도라의 희망』, 장하원 외 옮김, 휴머니스트, 2018.

아르노 빌라니 편, 『틀뢰즈 개념어 사전』, 신지영 옮김, 갈무리, 2012.

자크 데리다, 『환대에 대하여』, 남수인 옮김, 동문선, 2004.

최유미,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도서출판b, 2020.

3. 논문

강은교, 김은주,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듀나의 「두 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49,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36-62.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49,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0-35.

김성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페미니즘: '근대성 이론' 깨뜨리기」, 『유럽사회문화』26, 유럽사회문화연구소, 2021, 31-57.

김윤정, 「테크노사피엔스(Tschnosapience)의 감수성과 소수자 문학-윤이형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65, 우리문학회, 2020, 7-36.

노대원, 「포스트휴먼리즘 비평과 SF-미래 인간을 위한 문학과 비평 이론의 모색」, 『비평문학』68, 한국비평문학회, 2018, 110-133.

- \_\_\_\_\_, 「한국 포스트휴먼 SF의 인간 향상과 취약성」, 『한국문학이론과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0, 151-174.
- 박인성, 「SF문학의 시공간 및 초공간 활용 양상 연구- 배명훈·김초엽·김보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7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245-277.
- 서승희,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한국 여성 사이언스픽션의 포스트휴먼 표상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130-153.
- 연남경,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 휴먼적 전망-윤이형, 김초엽, 김보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학회』79,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105-139.
- 우미영, 「한국 현대 소설의 '과학'과 철학적 소설적 질문-김보영과 배명훈의 SF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55, 외국문학연구소, 2014, 121-141.
- 이양숙, 「한국소설이 비인간 전환과 탈인간중심주의」, 『한국문학과예술』, 한국문학과 예술연구소, 2020, 277-259.
- 차미령, 「기계는 감수할 수 있는가: 윤이형 소설에 나타난 인간과 소설로봇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35, 인문학연구소, 2021, 91-114.
- 황희숙, 「행위자-연결망 이론(ANT)과 페미니즘의 동맹 가능성-‘테크노사이언스’의 행위자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23, 한국여성철학회, 2015, 61-88.
- 허윤, 「일할 수 없는 몸'을 전유하는 페미니스트 SF의 상상력-김보영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52,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10-35.

<Abstract>

## The Possibility of Non-Human in Cheon Seon-ran's Fictions

– Focusing on Alliance between Feminism and Science Fiction

Yang, Yuneui\* · Cha, Miryeong\*\*

This study examines the non-human actors that appear in Cheon Seon-ran's fictions in light of the actor-network theory, feminist thought, and SF(Science Fiction) motifs. These non-human actors attempt to identify the meaning of 'hospitality' in the network of 'birth', practice the act of 'becoming', and become agents who fall in love through their 'actions' as individuals, thereby demonstrating the double paradox of the universal/individual, the universal cannot exist without others and individuals, while the latter constitute the whole precisely as individuals. An alien-child named Lessi practices a form of reversed 'hospitality'; for another non-human actor, the capacity of 'becoming' is verified through what are presented as 'my' physical changes; 'zombies' and 'man with womb' illustrate the paradox of the universal/individual; and a 'dummy' performs the act of love.

In these ways, the non-human actors in Cheon Seon-ran's fictions exhibit their individual competency. In this regard, those who exclude and expel others cannot achieve true universality. As Duhana shows, only those who sustain their individuality can attain such paradoxical

---

\* Assistant Professor, Korea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GIST

universality. The non-human actors also display their capability of being 'rewritten', because in Cheon Seon-ran 's fictions they change and become agents who belong to contemporary Korean society. For example, a non-human actor called 'vampire-zombie,' who is an excluded other, becomes a man-human, who in turn excludes others. Finally, they display the competency of a cyborg, in other words a post-human entity with a post-gender identity. Ultimately, this fiction introduces the phenomenon of becoming the other, and depicts cyborg behavior that is beyond gender and the binary division of the human and the non-human.

Key words: SF(Science Fiction), non-human, feminism, universality,  
individual, agency

투 고 일: 2021년 11월 15일

심 사 일: 2021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2021년 12월 23일